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보 새해(福)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 73:28)

외선부 겨울수련회

일시: 1월 22일(주일)~23일(월) 장소: 충현 기도원
주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시 67:2)

충현교회 교사 임명식

일시: 1월 29일(주일) 찬양예배시
대상: 교육위(영아~고등부), 세움위(소망부, 사랑부, 에바
다부, 성경아카데미, 평생대학원), 선교위(외선부)

2023년 순장영성훈련

일시: 2월 4일(토) 오전 10:00~14:00
장소: 갈릴리홀 대상: 순장

제6기 제자훈련 및 제5기 사역훈련 OT

일시: 2023년 1월 28일(토) 오전10:00~12:30
*자세한 내용은 8면 참조

선교헌금 작성안내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초마다 선교 헌금을 작성합니다. 나눠드린 선교헌금을 작성봉투를 이용해서서 선교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벤엘 찬양대원 모집

기간: 2023년 1월 8일(주일)~2월 5일(주일) 모집인원: 각 파트별 3명
*자세한 내용은 8면 및 홈페이지 참조

2023년
제10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 모집



현재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수료하고 작성한 190여명이 온라인과 현장기도로 계속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4(토)	10:00-10:50	기도와 중보기도
	11:00-11:50	충현교회의 기도운동과 사역의 실무
2/11(토) 헌신자의날	10:00-10:40	중보기도자의 성경적 모델과 의무
	10:50-11:30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
	11:30-13:00	제5회 헌신자의 날(예배, 간증, 식탁의 교제)

2/18(토)	10:00-10:50	신약의 기도
	11:00-11:50	영적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
2/25(토)	10:00-10:50	구약의 기도
	11:00-11:50	응답받는 기도
3/5(주)	오후 찬양예배시 / 수료 및 헌신서약 예배	

대상: 충현교회 세례받은 성도 누구나
일시: 2월 4일, 11일, 18일, 25일 (토요일, 4주간)
장소: 1교육관 501호

신청방법: 사무국 또는 충현기도실 행정실, QR코드
신청마감: 1월 29일(주일)까지 교재비: 5,000원
문의: 홍명주 전도사 010-2772-4856, 황경분 차장 010-2013-5006



금요집회 시리즈 설교 학점제 신청



주제: 로마서 강해(1-3장)
일시: 1월 27일~5월 12일(11주간, 3학점), 금요집회시
설교자: 한규삼 담임목사
신청기간: 1월 26일(목)까지
신청방법: 충현교회 홈페이지/ 네이버 신청(교구단톡공지)/ 교구모임시 신청서 작성/ QR 신청

1월 27일(금)	로마서 강해(1) / 롬 1:1-7	3월 24일(금)	로마서 강해(7) / 롬 2:1-11
2월 3일(금)	로마서 강해(2) / 롬 1:8-15	4월 21일(금)	로마서 강해(8) / 롬 2:17-29
2월 10일(금)	로마서 강해(3) / 롬 1:16	4월 28일(금)	로마서 강해(9) / 롬 3:9-20
2월 24일(금)	로마서 강해(4) / 롬 1:17	5월 5일(금)	로마서 강해(10) / 롬 3:21-26
3월 3일(금)	로마서 강해(5) / 롬 1:18-25	5월 12일(금)	로마서 강해(11) / 롬 3:27-31
3월 17일(금)	로마서 강해(6) / 롬 1:26-32		

지난 주일(1월 15일) 설교 되새기기

결국은 새 언약만 남게 됩니다

(예레미야 32:37-42)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동일하게 ‘언약’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교회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라는 표어를 따라 언약 중심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약성경의 중요한 주제인 언약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언약을 포함하면서도 훨씬 더 깊고 좋은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29장-32장에는 ‘새 언약’의 여러 측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에 관한 교훈을 보다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약에 대하여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이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37절)”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아올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켜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38절)”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Protection)하시고, 공급(Provision)하시며, 계획(Plan)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실 때만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좋은 관계이며, 언약을 붙드는 삶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39절)” 하나님과의 관계인 언약은 종종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먼저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맹종과 다른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기준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검증함에 이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주셨지만, 그 검증을 통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기준에 미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기존의 방법대로는 언약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주실 것이다”라며 예레미야가 ‘언약’에 대하여 거듭 강조한 이유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40절)” 삶에서 여러 시련을 마주하게 될 때,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지 낙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리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은 더 구체적으로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질 수도 있는

이전의 언약과는 달리, ‘새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 언약이기에 영원한 언약이자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마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관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마음에 기록되는 방법

베드로전서 3장 15절 상반절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거룩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관장하시게 됩니다. 즉, 우리 마음에 언약이 쓰여질 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어,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언약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됩니다. 이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롬12:2)”의 말씀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물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거나 여행을 다녀오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Refresh)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아니한, 세상적인 일들로부터 힐링(Healing)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이 말씀하는 ‘마음이 새롭게 함’은 ‘새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새 언약이 작동되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대로 언약이 마음에 기록됩니다. 본문 4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 언약’을 붙들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6:5)”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더하여 ‘목숨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41절)”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돌보시고 가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셨다는 것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뿌리가 뽑혀 이방으로 옮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땅으로 옮겨서 심어 주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가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심어졌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을 붙든 성도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의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Eventually, The New Covenant Would Remain

(Jeremiah 32:37-42)

Rev. Kyu Sam Han

Jeremiah the prophet emphasized, through the images of God's most beloved people of Israel being taken captive to Babylon, that the people of God should always live the same life of holding on to the 'covenant'.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our church, this is a very important message for us, who are determined to live the covenant-centered life, following the motto 'Holding on to the covenant, let's go into the neighbors and the world.' The covenant which is an important theme of the Old Testament has undergone changes in its depth, width and height owing to Jesus. As a result of Jesus, the covenant contained all the covenants of the Old Testament, and became a much deeper and better 'new covenant'. Several aspects of the 'new covenant' are recorded in Jeremiah 29-32 which we are examining together. We will try to examine deeply the lessons about the 'new covenant' recorded in the text at this time.

About the covenant

"Behold, I will gather them out of all countries where I have driven them in My anger, in My fury, and in great wrath; I will bring them back to this place, and I will cause them to dwell safely."(v.37). Jeremiah, the prophet, who proclaimed the plan of God was not a disaster but a peace, and eventually, God's people would return, says the people who are to return will dwell safely; because it is God's covenant. The Bible explains the covenant of God by referr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king and his people. "They wi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their God."(v. 38). God who is the king protects His people(Protection), provides them(Provision), and plans for them(Plan). However, if only when God gives us something good, good relationship with Him is maintained, it cannot be said to be a desirable relationship. It is a good relationship and a life of taking hold of the covenant to be pleased with God and to trust in God even in the difficult situations. "I will give them singleness of heart and action, so that they will always fear me and that all will then go well for them and for their children after them"(v.39). The covenant which is the relationship with God is often needed to be verified, and 'the fear of God' becomes its norm. The appearance of the 'life of fearing God' is expressed concretely in two criteria. First is obedience. It's because obedience is derived from the fear of God. We can obey God through being pleased with the will of God and loving God. Obedience is different from blind obedience like being dragged by force. Another thing is connected to 'righteousness'. 'Righteousness' is the condition through which we can be near to God. It's because God is 'righteousness' and the standard by which God will judge us is 'righteousness'. Therefore, the people of God should live practicing 'righteousness' in the world.

Though God gave us the concrete norm like these for verifying the relationship with God, it is not an easy task to pass the verification. Most of people appeared in the Old Testament also failed to reach this standard. Among them, the appearance of the people of Israel who were taken captive by Babylon was the most decisive event that shows that humans cannot keep the covenant relationship with God for themselves. That's the reason that Jeremiah repeatedly emphasized 'the covenant' by saying "The covenant cannot be observed by the previous method. God will give a new method." "I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them: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to them, and I will inspire them to fear me, so that they will never turn away from me."(v.40). When facing the troubles in life, even a believer often feels discouraged in whether God left him. However, God clearly promised 'I will not leave you.' This promise is said to be the 'everlasting covenant'. Jeremiah 31:33 says more concretely, "This is the covenant I will make with the people of Israel after that time," declares the Lord. "I will put my law in their minds and write it on their hearts.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people." It means the 'new covenant' is the permanently unbreakable covenant unlike the previous cove-

nant which could be broken. Because the new covenant is a covenant recorded on the heart, it is the promise which is eternal and unchangeable. The word 'to write it on their hearts' means God will control our minds. Let the Holy Spirit dwelling in us purify our hearts so that we can continuously go forward to God. That's why Jesus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in our lives. We should keep the covenant not by our own ability and power but by the grace of giving our minds the unbreakable covenant through Jesus.

The way how the covenant was put in the heart.

The first half of 1 Peter 3:15 says "But in your hearts revere Christ as Lord." When Jesus Christ becomes our master, we become holy. Through the process of becoming holy like this, Jesus controls our hearts. That is, when the covenant is written on our hearts, we become holy by adopting Christ as the Lord, and the covenant works within us as words of the Old Testament do. At this time, you can experience the change of renewing your mind as mentioned in the word: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Rom 12:2). Of course, those who are outside of the faith can also renew their minds. When something good happens, or when you come back from journey, you can experience the refreshed feeling. You can have the feeling of healing from the worldly chores. But what is said in Romans 12:2, 'renewing of your mind' means building the 'new covenant' relationship. When Jesus dwells within us so that the new covenant is operated, the covenant is recorded in our minds as Jeremiah 31:33 said. Like the word of verse 40 of the text, we do not come to leave God when the fear of God sprouts in our hearts so that we fear God. I hope that for this, holding on to the 'new covenant' which renews your minds everyday, you would become the believers who practice the word of Romans 12:2 in your lives.

The 'new covenan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recorded on the heart, and the wor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is the appearance of obeying God through fearing Him. Here, Jesus added a word 'with all your soul'. "I will rejoice in doing them good and will assuredly plant them in this land with all my heart and soul."(v.41). However, the prophet Jeremiah says that we are not the only ones who should do with all our heart, with all our soul. It means that God first took care of and nurtured His people with all His heart, all His soul in order to plant them on this earth. To serve God with all our heart and with all our soul and with all our mind is nothing more than our response to God. How can't we thank God for having done first with all His heart and soul. God did not leave the people of Israel who were taken captive to Babylon alone. God moved the Israelites who were uprooted and taken to foreign land, and planted them to the best soil, God nurtured them with all His heart and with all His soul. The covenant of God was also planted in our hearts as the same images. This is the image of believers who take hold of the 'new covenant'.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believing it is the life of the believers to renew your minds everyday, put Jesus as the Lord in your minds and live a holy life, you live that life.

영역·이울의

청년들의 신년특새 후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핑계들로 참여하지 못하던 특새에 도전했던 한 주였습니다. 요즘 저의 상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의 연속이었고 어떤 부분까지 감사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더 큰 보상을 원하고 나의 열심으로만 해내고 있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새를 통해 깨우치게 되었고 앞으로의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1부 류현식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루를 이르게 예배로 시작하며 사소하지만 큰 일상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시작한 하루는 평소보다 일상의 곳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주간이 끝난 이후에도 제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 보다 자 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을 다하며,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 어느 상황에도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청년1부 김주영

이번 특새는 23년을 시작하며 주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었다. 특별히 둘째 날 선포된 말씀 중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고백해야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난다고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나는 갈2:20절 말씀을 묵상 할 때면 많은 괴리감을 느낀다. 내 죄악이 여전히 내 육체를 사로잡고 있고 그러한 죄악의 유혹을 즐거워 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고백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 '고백'을 통해 드러난다는 말씀처럼 들려졌다.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며 고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 할 때 넘치도록 부어주시다는 것이다. 나의 시선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향할 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았다. 이러한 은혜는 넷째 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이어졌다. 하루 하루를 살아가며 느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날이 정말 짧다는 것이다. 잠깐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청년2부 김사무엘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내가 새 사람이므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한다는 말씀은 내 삶의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별새벽기도주간의 시작이었던 신앙고백과 마지막이었던 기도예에 대한 말씀은 특히나 좋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을 돌아보니 신앙의 기본과도 같은 신앙고백은 예전의 감사함에 멈춰있었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보다도 나의 뜻만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서 내 삶에서 감사함의 신앙고백을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2부 백종호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며 온라인으로 참석하던 예배가 다시 대면으로, 현장 예배로 회복됨에 감사합니다. 브릿지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이 새벽을 열어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환대하고 반기며 교제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히 출석 이벤트로, 아침 식사 준

비로 수고하고 헌신하여 준 브릿지 공동체 면려회의 손길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는 주제와 매일의 말씀을 통해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브릿지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의 하나로 교회를 세워 가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행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들은 말씀들이 2023년 올 한 해 그리고 한 평생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 예수로 주로 고백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세상 속에 빛나는 성도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브릿지 권소진

만물을 창조하신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총만함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진 말씀이신 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의 안에서 행하여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엿 것을 찾으라 말씀하시며 땅의 것을 찾지 말라 하시고 모든 일에 온전히 매는 띠인 사랑을 더하라 하시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예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예수님.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해답이 언약하신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지혜와 총명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감사함이란 세상 어떤 지혜도 총명도 아닌 보혈의 능력이며, 구원에 대한 확신이요, 심판 날 보혈의 공로로 나를 의롭다 칭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음에 감사하고, 언약하신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성령을 통해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한다.

브릿지 이지훈

새벽예배를 앞둔 주일 저녁, 아이들은 하루를 마치며 실내복 위에 겔옷을 입고 양말까지 신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할 자신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함께 새벽을 깨우며 특새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골3:1,10)는 말씀을 붙들고 보낸 한 주 동안 그간의 삶이 땅의 것을 붙들기 위해 애쓴 삶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3부 김민영

기도할 이유들은 많지만 세상이라는 핑계에 눌려 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때면 나보다 더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자기 앞으로 나아오라고 자녀양육에 대한 기도제목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믿음의 유산도 상속이 되지만, 부족한 제 모습으로 인해 죄의 유산도 상속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의 유산은 끊어버리고, 믿음의 유산은 풍성히 전달해주는 아버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 특새 기간 동안 이런 기도제목을 두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새사람을 입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처럼 하늘의 것을 더욱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제 신앙고백이 주님 보시기에 흠족하도록, 그리고 아이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세워 나가겠습니다.

청년3부 김준엽

MIRACLE MORNING

미라클 모닝 후기

교회학교는 2023년 새해를 열며 기적의 아침(Miracle Morning)이라는 명칭으로 올해 신년 특별새벽기도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회에 총 270명의 교회학교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교회학교 가정들과 학생들이 신년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여한 후 보낸 소감과 사진을 성도님들과 공유합니다.



작년 미라클 모닝을 했을 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이번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새벽, 졸린 눈을 뜨며 일어난 이례는 준비 찬송만 나오면 금방 웃음 짓는 모습을 보여 행복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반석 아래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신이레 학생 가정

시우가 처음으로 새벽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매일 특별새벽예배를 기대하며 설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은혜가 충만한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아이를 양육하는 2023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권시우 학생 가정

새해를 맞이하여 해준이와 승준이가 새벽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승준이에게는 기억에 남는 첫 새벽기도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깨어있는 삶으로 주의 일하심에 민감해지는 2023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승준 학생 가정

엄지척! 입니다. 아빠 엄마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도 같이해서 좋았어요. 골로새서 말씀 배워서 좋아요.

배주아 학생

8살, 유년부가 된 쌍둥이 찬빈이와 수빈이가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조절해야 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보화는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의 한자리를 내어놓는 쌍둥이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조찬빈 & 조수빈 학생 가정

이번 새벽기도회는, 새벽의 피곤함보다 기도의 감사함이 더 컸던 시간이었다. 답답한 마음이 정리되는 소중한 기도를 드렸고, 그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올 한해 기도에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야겠다.

서예은 학생





성경 읽는 태도가 인생 고도를 결정한다 ②

2. 성령을 간구하라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 의존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1편의 다윗,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한 시편 19편의 다윗, 하나님 말씀을 176절로 예찬한 시편 119편의 다윗, 이런 다윗처럼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존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사탄이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죄성으로 성경을 귀찮게 여기게 하고 부담스러워하게 해서 성경을 멀리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탄과 세상과 자아의 죄성 때문에 닫힌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개인의 심령 부흥은 성령의 심방이다. 1907년 평양 대부흥 같은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대심방이다. 부흥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도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성경 말씀을 통해 심령 부흥과 교회 부흥을 일으킨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한 미국도 인본주의와 합리주의 사고가 성경중심의 청교도 신학을 대체하면서 제 1차 대각성 운동이 중지되었다. 미국 대학들이 목회자들을 훈련할 때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학생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식어버리게 해서 결국 교회들을 죽여 버린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인간 이성에 의존하기보다 성령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의존해야 한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고후 3:16~17).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싫어할 때 성령의 부흥은 중단된다.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령에 의존하지 않을 때 성령의 부흥이 중지된다. 성령은 민감하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을 무시하거나 멸시할 때 활동을 철수하신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숨길이 들어 있다. 때문에 자연인은 성령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 성경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일단 중생해야 하고 중생한 후에도 성령에 계속 의존해야 한다. 중생하지 않은 학자가 성경 주석을 쓰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중생하지 못한 신학자가 성경을 이해한다고 해도 문자만 이해할 뿐, 가슴으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꿀이 달다고 말만 할 뿐, 단 꿀을 먹어보지 못한 것과 같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4) 구약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스승 니고데모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 즉 거듭남의 교훈도 깨닫지 못했다(요 3:1~12).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후

3:6).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의 안내를 간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셔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깨닫도록, 각 구절도 깨닫도록 간구해야 한다. 성경이 읽고 난 후에 읽은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생활(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간구해야 한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고 심령에 불을 붙이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밥처럼 먹고 음료처럼 마셔서 소화하도록 간구해야 한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된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구 프린스턴 신학을 따라 가면서도 동시에 성령의 실존적 부흥을 강조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도 따라간다. 에드워즈의 신학은 한 마디로 개혁주의 부흥신학이다. 에드워즈는 ‘강렬한 영적 체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 혼신의 힘을 쏟았고, 동시에 ‘기독교적 경건의 전형’이었다. 에드워즈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 위엄과 영광을 경험했고 경건을 지성에 앞세웠다. 리처드 러블레이스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을 이렇게 요약했다. “그것은 공동체의 타락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상적인 영적 생활로 회복시키는 성경의 쏟아부으심이다. 속에 있는 심각한 죄 때문에 신자들은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빠지고 후에 공개적 배교로 나가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은혜롭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영적인 침체기 다음에 각성기가 찾아온다. 지상에서 천국의 중요한 진전은 성령의 전반적인 쏟아부으심을 신호로 이루어진다.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적 균형을 잡으면서도 성령에 의존해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성령에 의존하는 간구를 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이다.

예수 생명의 복음을 체험하고 흘려보내는 것을 강조하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개혁주의 생명 사역’은 성경을 강해하여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정신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전파한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읽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겠다’는 태도로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얼마나 구하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도 있고, 안 구할 때도 있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절실하게 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구하지 않는가? 철저한 자기 점검을 통해 이번 성경 통독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다고 결단하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운데 주님께서는 새로운 한해를 우리 민족과 충현교회와 각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년의 오랜 기간의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동행하여 주시고, 힘써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열악한 목회 환경이었지만 온, 오프라인의 예배와 모임 및 제반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교회와 성도간, 교회와 가정간, 성도와 성도간에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초 신년감사 특별새벽기도회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을 입고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충현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은총을 생각하면 참으로 너무 많습니다. 오로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첫째가 대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작년 6월 방역 당국의 실내 모임에 대한 제한이 전면 해제된 이후 대면예배가 빠르게 회복되어 현재 주일예배는 코로나 이전의 75~83%까지 회복이 되었으며, 교회학교의 경우는 더욱 빨라 92%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교구의 전면 개편입니다. 기존 16개 교구에서 11개 교구 및 그루터기 부서의 교구화(12교구)를 통해 교구 목양 사역이 기대 이상으로 역동적이고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제1교육관 환경개선 공사의 준공과 이를 통한 앞마당 사역 활성화이며, 넷째는 전교인 성경통독과 리딩 지저스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다섯째는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 78명의 일꾼들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 받았습니다. 이밖에 전 교회적으로, 각 부서별 및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금년은 충현교회 설립 7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가 됩니다. 70년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 땅에 충현교회를 세워 주시고,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 받던 이 민족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웃

과 열방을 향해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셨습니다. 작년 4월에 조직하여 가동된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준비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교회 앞에 보고한 13개의 기념사업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길 기원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3월의 학술 컨퍼런스, 4월의 선교사 대회, 5월의 기독교 뮤지컬 초청 공연, 8월 말의 전교인 부흥회, 9월의 찬양제 및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예배 등이 다채롭게 기획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70주년 홈페이지 개설, 역사관 설치, 기념 동영상 제작, 교회 헌신 공로자 자녀 시상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별, 부서별 자체의 70주년 기념사업들이 기획되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며, 복음의 진보와 확장이 있는 기념사업들이 되길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향후 충현의 지속 가능한 교회를 위한 3대 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즉 교회 부흥을 위한 3대 축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교구사역의 역동성을 통한 기존 성도님들이 신앙의 지속적인 성화를 이루어야 하겠으며, 둘째는 미래 세대로의 믿음의 순전한 계승을 위한 세대 간의 연결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성세대와 차세대, 그루터기(12교구)와의 연결이 선결과제입니다. 셋째는 새순(11교구)이 조속하게 안정적으로 충현 공동체 안으로의 정착하는 것입니다. 위의 과제들의 해결과 달성을 위해서 금년 교회 설립 70주년을 원년으로 삼아 교회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들과 방안들을 도출하여 실행에 옮겨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주님의 몸된 우리 충현 교회가 이웃과 한국사회에서는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며,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겸손히 조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3년 금년 한해 충현의 온 성도님들께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써 교회 설립 70주년을 넘어 100주년, 또한 새로운 70주년을 향하여, 주님오시는 그 날까지 힘차게 쫓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천복을 듬뿍 받아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회서기 이상석 장로

70주년 전교인 성경 통독 신청자 모집

- 1.성경통독 기간: 2023년 1월30일(월) ~ 11월18일(토)
- 2.신청기간: 1월27일(금) 까지
- 3.신청방법: 충현교회 홈페이지 / 네이버 신청(교구단톡) / 사무국 신청

보조교재 배부안내 및 성경읽기표 배부

- 1.성경통독 보조교재(리딩지저스)
 - 교재비 45,000원(판매가 90,000원 중에 50%를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 성경통독 신청시 교재 구입 신청하신 분은 아래 성경통독부 계좌번호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3333-03-7455852 최병일(성경통독부)
 - 입금 시 이름과 교구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이통독1교구)
 - 성경통독을 신청하시고 입금하신 분만 교재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2.성경통독 보조교재 배부 안내
 - 통독 교재는 1월29일(주일)에 배부합니다.
 - 장소: 코니카페 교구별 부스
- 3.성경통독 읽기표 배부
 - 성경통독 읽기표는 코니카페 교구별 부스, 본당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성경통독부 최병일 안수집사(010-7534-2952)

*교회학교 및 에바다부 성경통독자는 부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2023 70주년 전교인 성경통독 안내

12월 입적자 명단 ※ 충현의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본과정 수료자(27명)

강정애 곽하영 김동문 김보연 김새롬 김성중 김숙이 김예슬 김해진 박서연 박정현 양현석 유다일 유창현 윤아리 윤이순 이덕경 이선호 이승준 이용길 정혜원 조종태 조태연 최진유 형이슬 홍성구 황영현

교육위원회(1명)

길아성

차세대위원회(11명)

강진구 김강산 김경인 김루가 김재혁 성유빈 어기원 이수지 이초령 차수영 황찬미

제6기 제자훈련 및 제5기 사역훈련

오리엔테이션 & QT세미나 안내

일 시: 2023년 1월 28일(토) 오전 10:00~12:30
내 용: 제자 및 사역자 훈련 오리엔테이션 및 제자훈련생 QT세미나
장 소: 1교육관 404호 준비물: 성경, 찬송가, 필기도구, 훈련회비(9만원)

선교위원회 영성훈련

일 시: 1월 28일(토) 10:00~12:00 강 사: 정수영 목사(전 홍콩충현교회 담임목사)

충현복지재단 시설장 채용

1. 충현복지관 관장: 편성연 2. 충현어린이집 원장: 김은정 3. 충현보호작업장 원장: 김성한

2023년도 회계 교육

일 시: 2023년 1월 29일(주일), 2월 5일(주일) 중 택일 시 간: 16:30~18:00 장 소: 제 1교육관 301호
지참서류: 2023년 예산편성표 사본 대 상: 각 위원회 산하 부서의 회계 및 부서장 또는 부감(위원회 간사)

2023년도 집사회 정기총회(예결산)

일 시: 2023년 1월 29일(주일) 시 간: 12시 10분 장 소: 집사회 사무실

예배 담당(1/25~1/29)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1/25	수요 I	선택의 길목에서 (창 46:1-7) 권혁근 목사	임진실	차영신
1/27	금요집회	로마서 강해 (1)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롬1:1-7) 한규삼 담임목사	신경철	
1/29	주일 I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딤후 2:15) 한규삼 담임목사	권순동	홍금성
	주일 II		이성환	강태영
	주일 III		이기영	김희동
	주일찬양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 (느 8:1-12) 김승래 목사	윤준식	조윤재

교구별 주력새벽기도(1/23~1/29)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23(월)	이성환/임병익	마 3:1-12	전교인
24(화)	정석훈/박명호	마 3:13-4:11	전교인
25(수)	김유석/박충순	마 4:12-25	전교인
26(목)	김주한/김광진	마 5:1-12	11교구
27(금)	문진호/윤용현	마 5:13-20	3교구
28(토)	이다현/이다현	마 5:21-32	전교인
29(주)	신경철/신경철	마 5:33-48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9:00	본 당
	II 오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 예배	오전 11:00(본당)	
금요 집 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구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유아부	10:50~12:00	마테홀(제1교 201호)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12교구(그루터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구분	시 간	장 소
사랑부	10:45~11:50 (성인) 11:00~12:00(아동, 청소년)	사무엘홀(제2교 204호)
성경아카데미	12:20~13:30(에스라) 12:40~13:40(아블로)	디도홀(제1교 401호)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새가족기본과정부	오후 12:10	베다니홀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엠마오홀
11교구(새가족)	오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예꿈 양육부	(주)오전 8:30~오후 2:30	예꿈도사실(제1교 601호) 예꿈돌봄실(제1교 701호) 유다홀(제1교 702호)
국내외국민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37	윤소연	청년2부	
2	139	문하선	청년2부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19	전형석	기본과정	신정순
2	120	정세지	기본과정	박형숙
3	121	김기훈	기본과정	
4	123	백종원	기본과정	
5	127	정은영	기본과정	
6	135	이지현	기본과정	이훈
7	140	윤성학	기본과정	
8	142	류경래	기본과정	
9	143	김현욱	기본과정	
10	144	정재현	기본과정	이옥렬

출 산	1. 김광범 성도, 김혜진 성도(1교구) / 출산, 아들, 1월 13일
별 세	1. 우중선 성도(김덕실 은퇴집사의 남편·우영천 집사의 부친·오현숙 집사의 시, 6교구) / 16일 별세, 18일 장례 2. 전복실 은퇴권사(송수일 은퇴서리집사의 부인·송은혜 성도의 모친, 8교구) / 16일 별세, 18일 장례 3. 이상순 타교은퇴권사(안화순 권사의 모친·김국희 집사의 장모, 2교구) / 16일 별세, 18일 장례 4. 이옥모 성도(이홍자 은퇴권사·이홍선 은퇴집사·이홍숙 은퇴집사의 모친, 7교구) / 17일 별세, 19일 장례

벤엘 찬양대원 모집

찬양의 멜로디 속에서 함께 삶을 고백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모집대상: 충현교회 세례교인/ 등록 후 1년 경과하신 성도

찬양시간: 주일 3시 30분(찬양예배)

연습시간: 주일오후 1~3시, 4:30분~6시/ 주중 연습 없음

문의처: 총무 김선희(010-2297-0039)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전도위원	신광철 행정위원	이상석 당회서기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인사위원
김태식 9교구장	이상섭 동산부장	이보신 인사위원	이상해 기도원부장	김성호 종보기도부장
조증민 봉사위원	이상복 교구위원장	지규성 선교위원장	김영주 전도위원	최민석 할렐루야찬양대장
김명성 차량안내부장	이창희 충현복지재단상담이사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흥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세무위원장	최현구 인사위원	남용승 인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당회부서기	허만선 찬양위원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봉사위원장
양효민 행정위원장	박원화 성례부장	이상배 기획위원장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성경독무부장	전성욱 아멘찬양대장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건축위원장	김철남 예루살렘찬양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교육위원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벤엘찬양대장	홍순길 2교구장
정인욱 기획위원	남준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임마누엘찬양대장	이정환 6교구장
이양선 7교구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예배부장	김세종 선교위원	한홍연 헌금부장
최규욱 예배위원	최승민 제자교육훈련부장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인내부장	문영규 1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실로암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익 교육지원부장	

■ 목사

이기영 12교구	이원용 소망부	강성은 선교위원회	김주한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9교구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석훈 8교구
김유석 에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고등부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립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후직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청년1부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광명대리원	이정은 11교구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신명환
외선부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 협력선교사

강기엽 윤해군 윤명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람자야 라우단다쉬
베 웅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틸라